

# 학교 안 '교사'와 학교 밖 '선생'의 차이는?

### 광주지역 선생 7명 '교사, 선생이 되다' 출간 학생들과 부대끼며 느낀 참교육의 가치 성찰

“나는 아이들이 총명하고 당당한 사회 구성원이 되기를 바란다. 잘 읽고, 깊이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옳게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시 생각해도 '독서'다.” <김태은 선운중 교사>

“나는 아이들이 교실에서 각자의 자리를 잡을 수 있고, 저 너머의 세상에 희망 어린 호기심을 갖기를 바란다.” <김숙 전 남사대부고 교사>

“학생들 사람이라는 상식, 학부모 대하지 말고 얘기를 잘 들어주는 상식, 경쟁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를 배우는 학교여야 한다는 상식, 차별 받아서

는 안 된다는 상식, 인권은 상식이 통하는 학교를 요구하는 것이다.” <허창영 광주 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 팀장>

빛고을 광주의 일곱 선생이 함께 꿈꾸는 학교다. 이들은 주어진 것을 주어진대로 가르치는 교원직을 거부하고,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진짜 선생이 되고자 발버둥친다.

이들이 학교 안팎에서 학생들과 부대끼며 참교육을 실천하는 교육실천서 '교사, 선생이 되다'를 펴냈다.

강경필 교육공관 오름 대표, 고은자 전남사대부고 국어교사, 김숙 전남사대부고 지리교사, 김태은 선운중 국어교사, 양수



희 비아초 교사, 이선화 수완중 교육복지사, 허창영 광주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 조사구제팀장 등 일곱 선생의 학교와 수업 이야기다.

이 책은 '초등인권, 독서, 학급경영, 인문학, 교실공간, 교육복지, 학교인권' 등 주제에 담긴 일곱 선생의 고군분투기이자, 일종의 고백서다.

각각의 테마를 책임지고자, 그 안에 갇히기보다는 테마를 통해 교사와 학생이 성장하고 교육에 대한 깊은 성찰로 이어지는 생생한 과정을 실감나게 그렸다.

이들은 학교 안팎의 현장에서 가르치는 동시에 배움의 길을 걷고자 한다.

“세상 어디에도 가르치지 못한 사람은 없으며, 배우기만 하는 사람도 없다. 학교에서는 '교사'가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가정에서는 부모가, 사회에서는 친구가, 또는 옆집 할머니가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자 '선생님'이다. '선생'은 어느 곳에나 있다.”

이 책 속의 이야기들은 거칠기도 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다. '평범함'과 '특별함'은 종이 한 장 차이라 한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열정, 종이 한 장의 무게가 크다. 그 무게를 이긴 일곱 선생의 가슴 떨리는 그 울림이 독자들의 마음에 작은 파동이 되어 전해질지 기대한다.

<실림타/260쪽/1만3000원>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동신대, 한의학 R&D사업 선정

### 김재홍·윤대환 교수 뇌졸중 등 양·한방 융합 연구

동신대학교(총장 김필식)가 보건복지부의 2014년도 한의약분야 R&D 신규 사업으로 2개 과제를 수행하며 한의약 산업 활성화에 나선다.

김재홍 한의학과 교수가 양·한방 융합 임상연구사업에 선정돼 3년 동안 연 3억원씩 총 9억원의 지원을 받아 '뇌졸중에서 경두개 전자기 자극과 두침 자극의 뇌신경 융합자극 치료 기술 개발'에 나서고, 윤대환 한의학과 교수는 한의약 선도기술개발사업에 선정돼 2년간 연 5000만원씩 총 1억원의 지원을 받아 '수족경 락혈의 침자극을 위한 해부생리학적 관찰 연구'를 실시한다.

김재홍 교수의 과제는 뇌졸중 치료에 효과적인 양·한방 융합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로, 양의학의 경두개 전자기 자극, 한의학의 두침 자극 등 양·한방 뇌졸중 치료법에 대한 효용성 연구를 통해 전자기 자극과 두침 기반의 뇌신경 융합 자극 프로토콜을 개발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전남대 의과대학 재활의학과 이상규·한재영 교수 연구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뇌신경 융합자극의 작용

기전과 효과를 규명하는 한편 임상 적용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윤대환 교수는 수족경의 락혈에 대한 해부학적 관찰을 통해 침자극의 객관적 지표를 확보하고, 침구치료의 객관성과 효용성을 높이는 한편 한의학의 근간이 되는 경락경혈학의 기반을 다지게 된다.

특히 이번 연구 결과가 향후 진행될 경험 침구 관련 동물실험에 객관적이고 기초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객관적인 침자극이 보급, 치료 및 진단기술·의료기기 개발 시 포괄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정형화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올해 보건복지부 2014 한의약분야 R&D 사업에는 8.6대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7개 분야 18개 과제가 신규 선정됐으며 수주기관별로는 경희대 7개, 동신대·동국대·원광대·대전대가 각 2개, 부산대와 (주)셀트리온, (주)참존이 각각 1개의 연구를 수행하게 됐다.

동신대 한의과대학 나창수 학장은 “양·한방 융합 연구를 통해 난치성 질환 등에 대한 기존의 치료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조선대 유학생 출신 중국 교수들 모교 홍보 '앞장'

### 박계옥·류함함·한청 교수 대외협력 외래교수 임명

조선대학교 유학생 출신 중국 여교수 3명이 조선대의 대외협력외래교수에 임명됐다.

박계옥 중국 소주대 교수와 류함함 산둥사대 교수, 한청 천진사대 교수 등 3명은 최근 한·중 국제학술발표대회에 참가자 모교(조선대)를 찾았다.

박계옥 교수는 조선족 출신이고 류함함·한청 교수는 한족 출신이지만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다. 세 사람 모두 김수



중국어국문학과 교수의 제자들이다. 박계옥 교수는 2002년 연변대 대학원에서 행정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직원 교류 차

정이던 인하여 대신 조선대에서 박사과정을 마쳤다. 박 교수는 박사 학위 취득 후 귀국해 한국어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전 세계인의 조선대 동문화'를 추진하고 있는 조선대는 이들 동문 교수 3명을 대외협력외래교수에 임명, 중국에서 조선대를 널리 알리고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들은 단기 프로그램으로 방학 기간에 중국 학생을 모집, 조선대에서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을 비롯해 조선대와의 교류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송원대-건국대 교육·학술교류 협약



### 보건계열·뷰티예술학과 건국대병원에서 임상실습

건국대학교(총장 송희영·왼쪽에서 네번째)와 송원대학교(총장 최수태·다섯번째)는 21세기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세계 속의 우수 대학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 교육·학술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송원대 보건계

열 학과(간호학과, 치위생학과, 재활건강학과)와 뷰티예술학과는 건국대학교 산하 병원에서 임상실습을 할 수 있게 됐으며, 다양한 임상실습 환경을 통해 선진 임상실무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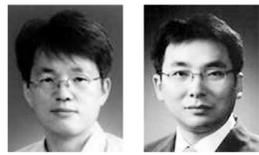
이는 서울, 경기 지역으로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취업 전 경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진로 결정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전남대 백경환·김민구 교수 용봉학술상

전남대는 최근 농업생명과학대학 백경환(응용생물공학부 분자생명공학 전공) 교수와 사회과학대학 김민구(인류학과) 교수를 제18회 용봉학술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백경환 교수는 최근 5년간 연구 실적에 소속 학문 분야의 거점국립대학(서울대 포함) 평균 실적보다 월등히 높았고, 같은 기간 JCR 상위 10% 논문 실적이 총 17편에 달한다. 특히 게재 논문의 영향력지수를 나타내는 평당 Impact Factor가 6.01로 타 후보 Impact Factor 평균(3.17)의 두 배에 육박했다. 김민구 교수 역시 최근 5년간 연구 업적이 경쟁 후보에 비해 탁월했다. SCI급(SCI, SCIE, SSCI, A&HCI) 논문 게재 실적이 7편으로 타 후보 평균(0.3편)을 크게 앞질렀으며, 최근 5년



백경환 김민구  
간 저서 실적도 48권에 달했다. 용봉학술상은 전남대가 교수들의 연구의욕 고취를 위해 제정한 상으로 매년 연구실적, 논문 영향력지수(Impact Factor), 교외 연구비 수주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결정한다. 시상식은 3일 개교 62주년 기념식에서 진행된다.

# 호남대 랄랄라스쿨 '방과후 강사 연수기관' 선정

### 2년 연속...300명 대상 소통·격려 기술 등 교육

호남대랄랄라스쿨(대표 정영기)이 광주 시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외부 강사역량강화심화연수' 운영기관에 2년 연속 선정됐다.

'방과후학교 외부강사역량강화심화연수'는 강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특기와 적성 개발에 기여함으로써 공교육의 질 향상을 통해 내실을 다지고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3년에 이어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호남대랄랄라스쿨은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강사 30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16

일부터 23일까지 '커뮤니케이션기법(김기태 신문방송학과 교수)', '격려기술심화과정(김미례 상담학과 교수)', 'OK통합진로실천(김미례 상담학과 교수)' 등 3개 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연수를 통해 지역의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강사들에게 학생들과의 연대감 및 소통 형성, 격려기술 등 교육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이수한 강사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호남대랄랄라스쿨 정영기 대표는 "이번 방과후학교 강사연수가 방과후학교 질적 수준 제고와 내실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OPEN 30년 전통 돈까스**  
SALAD & PASTA COOK

Since 1983 **유생촌**

유생촌 무한리필 돈까스

성인 ..... 10,900  
초등학생 ..... 7,000  
소인(미취학) ..... 4,000  
음료 ..... 무한리필 (콜라, 사이다, 한타, 주스)

유생촌 무한리필 돈까스  
· 프리미엄 최상급 양돈  
· 풍부한 육즙  
· 부드러운 식감  
· 올일종기스와 자양 허브 육성  
· 최첨단 무공해 신선육재료

즉석요리 알리지않는 생돈까스 30년의 노하우  
샐러드 & 돈까스 스파게티, 탕수육, 미트볼 제육볶음, 치킨, 생선까스

유스퀘어점 ☎ 062) 671-1199  
유스퀘어\_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구.아이엘리시아)

문화체육관광부 시범사업 선정!  
**“광주빛고을스포츠클럽”**

광주빛고을 스포츠클럽은 건전한 여가와 생활체육의 활성화 레저문화보급을 위해 설립된 주민편의 스포츠클럽입니다.

모집대상: 광주시민 누구나  
연령별 맞춤형 종합 스포츠 클럽 운영  
회원 선착순 모집

종목	요일	시간	장소	종목	요일	시간	장소	
탁구	월, 수	오전 10시-12시	동림다목적체육관	요가	월, 수, 금	오후 4시-5시	동림다목적체육관	
		오후 2시-6시				오전 9시 30분-12시 30분	호반베르디움휘트니스	
	화, 목	아간 6시-10시			화, 목	아간 8시-10시	고신래너도장	
		오전 10시-12시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건강댄스	월, 수, 금	오후 3시-4시
	오후 2시-6시	농구(유소년)			화, 목		오후 5시 30분-6시 30분	동림다목적체육관
	수, 금				오전 10시-12시	배드민턴	금	오후 5시 30분-6시 30분
오후 2시-6시		토, 일	오후 3시-5시	북구종합체육관				
월, 수	오전 10시-12시	신항중학교 강당	야구(유소년)	토, 일	오후 3시-6시	북구종합체육관		
	오전 2시-6시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200번지(구 동림동 10-1번지) 다목적체육관  
TEL. (062)714-2002